

EY한영 - GE디지털, 산업용 사물인터넷 파트너십 체결

- 산업용 사물인터넷 글로벌 파트너십 '디지털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한국에서도 본격 가동
- GE의 디지털 산업 솔루션과 EY의 비즈니스 컨설팅 전문성으로 국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



EY한영(대표 서진석)과 GE디지털(대표 조원우)은 글로벌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산업 인터넷) 파트너십 '디지털 얼라이언스 프로그램'(Digital Alliance Program)의 국내 협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0월 20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GE의 산업 인터넷 플랫폼 '프레디스'(Predix)에 기반한 디지털 솔루션 및 애플리케이션을 공동 개발하고, 산업 분야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디지털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은 2016년 2월 EY와GE

디지털이 선보인 산업 인터넷 기반 글로벌 연합체로, 디지털 산업 파트너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스타트업부터 다국적기업까지 참여하고 있다. 연합체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 등 전 세계 700개 이상의 파트너들이 프레디스 기반 다양한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EY와 GE디지털은 산업 자산을 산업인터넷에 연결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운영 성과를 극대화하는 기술인 자산성과관리(Asset Performance Management, APM) 솔루션을 비롯해, 디지털 산업 기업으로서 GE가 보유한 산업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역량과 EY의 광범위한 비즈니스 컨설팅 경험, IoT 및 데이터 분석, 사이버 보안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해 고객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다.

양사가 공동 개발한 에너지관리 솔루션인 MEMS(Manufacturing Energy Management Solution)의 경우, 기업들이 GE 프레디스 플랫폼을 통해 공장의 전력과 물 사용량을 추적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산업 기업들은 클라우드에 연결된 다양한 생산설비와 축적된 데이터 자산을 분석해 기계의 가동 시간을 개선하고, 작업과정을 최적화할 수 있다. 생산과 공급망 전반의 운영 최적화는 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